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1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2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3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론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후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 이 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 담당

11/17(화)	11/18(수)	11/19(목)	11/20(금)	11/21(토)	11/23(월)
전병천 안수집사	안상은 안수집사	김성우 안수집사	이양종 안수집사	고광수 안수집사	박우현1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롬12:11)

2026년 11월 18일(수)

이른아침예배

인도 : 장지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42장	다 같 이
기 도		안상은안수집사
성경봉독	열왕기하 23장 24~27절	인 도 자
찬 양	오소서 하늘 아버지여	새벽찬양대
설 교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	장지훈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14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3:24~27>

24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6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그 모든 격노 때문이라

2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11월 18일(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새로운 이 한 날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행위와 어떠함이 아닌, 우리 존재 자체를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주님이시기에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더 기쁨으로 순종하는, 존귀하고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지금까지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새문안교회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맡기신 비전과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창립 140주년과 헌당을 준비하는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기신 사역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교역자와 선교사님들, 당회와 제직, 그리고 새문안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대입 수능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수험생 자녀들을 더 깊이 살펴주시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믿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참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선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먼저 살피며, 겸손과 정직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에, 화해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친 이들에게는, 새로운 부활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